

오순절 후 열네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4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4년 8월 25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9 장 “성도여 다 함께” (통일 29)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4 번 시편 81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여호수아(Joshua) 24:1-2 상, 14-18	고지현 집사
찬 양 Anthem	“내 소망의 주”	찬양대
설 교 Sermon	“여호와만 섬기라” (Serve the Lord Alone)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나는 예배자입니다 / 소완”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322 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통일 357)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추구하기 보다는,

세상의 헛된 욕망을 좇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오니,

다시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전 43, 시 51:10)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수 24:14)

“Now fear the LORD and serve him with all faithfulness. Throw away the gods your forefathers worshiped beyond the River and in Egypt, and serve the LORD.” (Joshua 24:14)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8/25 (주일)	8/26 (월)	8/27 (화)	8/28 (수)	8/29 (목)	8/30 (금)	8/31 (토)
	삼상18	삼상19	삼상20	삼상21,22	삼상23	삼상24	삼상25
본문	롬16	고전1	고전2	고전3	고전4	고전5	고전6
	애3	애4	애5	겔1	겔2	겔3	겔4
	시34	시35	시36	시37	시38	시39	시40,41

수/요/ 찬/양/집/회

수요 찬양집회 (8/28수 오후7:30)

토/요/ 새/벽/기/도/회

“깨어 있으라”(마25:1-13)

토요 새벽기도회(8/31토 오전6:30)

“호흡이 있는 자마다”(시150:6)

지난 주일 (8/18 김성웅 목사)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 21:1-6, 15-17)

예수님께서 왜 그 새벽에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도 거듭 세 번씩이나 의미심장하게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그리고 왜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는 말씀을 던지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던 그 밤, "다 주를 버릴 찌라도 나 만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새벽,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곧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울 때마다, 아마도 심한 자괴감과 패배감으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제는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되었고,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니 차라리 예수님 따라 나서지 않았더라면...하는 생각을 베드로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다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1) 첫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간적인 고뇌와 변민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이고, 2) 둘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처음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시겠다는 것이며, 3) 셋째는,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사랑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해지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설/교/ 메/모